43. 선박제조업 도장부서 사상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간암

성별	남	**나이**	53세	**직종**	사상작업자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유OO은 1984년 D조선공업에 입사하여 사상작업을 하였다. 2001년 7월 간암으로 진단되었다.

2. **작업환경**: 유OO은 1982년부터 3년동안 사상작업을 한 경력이 있으며, D조선 공업에는 1984년 입사하여 선행도장부서 전처리반에서 사상작업을 하였다. 작업내용은 블록의 녹제거 작업이며, 신나를 이용하여 일부 부위를 닦는 작업이다. 그밖에 보조적으로 붓도장, 도료 혼합, 스프레이 사수의 보조 작업을 하였다. 유OO의 노출유해물질은 주로 사상작업시 발생하는 철분진과 기타 중금속분진이며, 보조적으로 실시하는 도장작업에서 톨루엔, 크실렌, 메틸에틸케톤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 유OO는 작업환경에서 간암을 발생시키는 염화비닐단량체나 비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았다.

3. **의학적 소견**: 유OO은 입사시 건강진단 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1990년부터의 건강진단기록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에 양성이었던 기록이 있었고, 2000년까지 간기능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다가 2001년 종합건강진단 초음파 검사에서 간종양이 발견되었다. 2002년 4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간염바이러스검사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항원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유OO의 간암은
   ① 선박제조업에서 사상작업을 주로 하고 도장작업을 보조적으로 하다가 발생되었는데,
   ② 작업 중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았으며,
   ③ 정기건강진단기록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이었으며, 10년 이상 만성 간질환을 앓아왔는데,
   ④ 현재까지의 연구보고에서 B형 간염은 간암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